

# 농촌계획과 건축학

## Rural Planning & Architecture

장 성 준  
Jang, Seong-Jun

건축학박사,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 1. 건축학의 속성

건축학은 기능·구조·심미 영역을 종합하여 건물환경을 창조하는 분야이다. 19세기까지의 건축학은 일품건축물만을 다름으로서 예술에 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사회가 새로운 기능의 건물을 요구하고 과학과 기술의 응용이 중요해지면서 기능과 공학 영역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건축환경의 기획과 생산에 있어서 설계자와 사용자의 분화에 따른 괴리현상, 동일모델 대량생산에 따른 위험요소의 증대, 참여자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혼란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보낼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건물은 제작과정에 따라 계획, 설계, 시공의 단계를 갖는다. 최근에는 계획에 큰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선 건물완료 후의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회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현대에서는 기존건물의 자료가 어느 교과서적 자료보다 우선한다. 이는 건축학에서 실험은 대체로 제한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건물의 물리적 강성이나 실내 기후 등은 실험이 비교적 용이하나, 건축환경에 종합적으로 인간이 반응하는 부분은 매우 어렵다. 마치 사회과학에서 실험이 곤란한 면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건축물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수준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보다는 참여자의 기대와 충족 수준, 투입자원의 한계와 우선순위,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한 건축계획,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이해 공감하는 작업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적절한 건축환경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건물 자체의 품질은 개선하였어도 주민의 취향과 경제력에 맞지 않아 실패로 규정되는 사업을 무수히 봄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학은 4영역과 3작업단계의 조합을 지원하는 세부분야를 갖는다.

3단계 \ 4영역	기능 환경	구조 시공	심미 형태	역사적 사례
계 획	건축계획, 건물가분 단지계획, 환경계획		형태론	
설 계	건축설계, 설비설계	구조설계	건축설계	건축역사
시 공		건축재료, 건축시공		

건축학 분야 전공자가 선택하는 전문가직은 주로 건축사(건설교통부), 건축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이상 과학기술처)가 있으며, 주변 분야로의 진출 기회도 다양한 편이다. 전문가 조직도 전통적으로 건축학회(과학기술처 지원), 건축사협회(건설교통부), 건축가협회(문화체육부)의 3개 단체로 분화되고, 건설

업체간의 각종 협회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학은 다양한 얼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2. 농촌건축의 시도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나누어 함께 국토환경을 이룬다. 도시환경이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 새로이 개발된 인공환경이 구조를 이룬다면 농촌은 비교적 전통적이며 자연요소가 지배적인 환경이며 산업화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모양을 갖는다. 계획학 분야에서도 도시계획은 1970년대 이후 뚜렷한 존재를 확립한 것에 비해 농촌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농촌은 도시를 계획하고 남은 여타의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이는 국가 정책과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 전체에 풍미한 사고의 결과라고 인식된다.

건축학은 시원이 도회적 속성을 가지며, 고급기술, 엘리트, 민간기업, 개발지향적이어서 왔다.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에서 더 고도의 기능 구조 아름다움을 요구하였고 특히 지불능력이 있었다. 동일한 도시개발과정에서도 달동네보다는 고급주거촌에서, 소형 단독주택보다는 대형 아파트, 국민학교 교사보다는 우수기업체의 사옥에서 건축전문가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건축분야는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 연구, 투자를 행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기술의 혜택과 분배에 있어서 고급기술이라도 사회의 발전과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스레 저변 확대된다는 실증주의적 논리로 양해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촌이 건축환경은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특히 정부가 농촌지역에 대해 계획적 변화를 시도하고, 일부 전문가가 학문적 흥미에 의해 동기된 경우를 통하여 “농촌건축”이라 이름할 수 있는 업적이 쌓여가고 있다. 다음 몇 부문에서의 경험과 업적은 한정적이지만 장차의 작업을 위해서는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분량이며, 특히 기술이 갖는 사회적 의미의 면에서 건축학 자체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건축계획 분야 농촌주택부문의 작업으로서 주택형과 마을배치의 계획이다.

1972년에 정부가 착수한 새마을 사업을 계기로 열린 새마을 농촌주택연구 발표에 전국의 33개 대학 건축학과에서 참가하여 농촌유형에 맞는 주택형과 마을계획, 또는 농촌의 국민학교형을 연구 제시한 것이 이 부문에서의 최초의 작업이 된다. 대학에서의 연구대상이 구미모델에 치중되었던 당시 분위기에서 우리의 삶의 기저를 이루는 농촌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경이에 속하였다. 여러 대학의 학자들이 농촌마을을 선정하여 주택과 마을배치를 실측하고 개량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록 정부사업에의 반응으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학자들에게 주변의 현실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학문적 고찰을 할 계기가 되었으며, 몇 대학은 이후에도 건축에서의 한국화라는 독특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후 새마을 사업의 농가개량에 사용될 농촌주택표준설계도(1978형, 1979형, 기타, 대한건축학회)와 취락개선모델(1975)이 건설부에 의해 제작 배포되어 전국적으로 건설에 사용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이주 정착민을 위한 신규농촌마을이 다목적댐건설과 간척개간지 이주촌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기였으며 그때마다 일과성 모델이 제작 건설되었다.

당시의 모델과 사업은 현대적 기술과 국가자원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삶의 양식에 대한 현실파악과 통찰력 없이 도시주택의 퇴행적 재연, 익명적 미래의 가상현실화, 기술 낙관주의, 기술의 사회적 결여라는 함정에 빠짐으로서 비판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이들 공공사업은 전문가 참여의 방향과 한계를 알리는 좋은 교훈으로서 기억되고 있다<sup>주1)</sup>.

1990년대에도 농촌주택과 마을계획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은 설계안현상공모<sup>주2)</sup>, 농가부분개설설계도 제작<sup>주3)</sup> 등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그간에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전 사업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비판이 지금에도 유효하다는 데서 건축학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과

같이 삶의 다양성이 시간, 일, 인간관계, 국토이용 등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는 주제에 있어서, 생활과 공간간의 관계를 다루는 건축계획은 특히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둘째, 건축역사 부문의 한국전래주택과 마을배치에 대한 연구이다(주4).

이들은 전래주택에 대한 고고학적 관심의 표명으로서 주로 유서깊은 전통부락, 중상류주택 등에 치우쳐 왔다. 과거 격리되고 소통수단이 불편했던 시절의 지방주택형, 계급사회의 산물인 상류주택, 봉건 씨족부락으로서의 배치체계, 수공업적 생산으로서의 일품건물 등은 현재의 농촌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삶의 표현으로서의 주택과 마을보다는 화석화된 과거 삶의 유구를 다루는 경향이다. 현재 삶이 배제된 건축환경은 민속촌, 유형문화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지며, 오늘날 농촌건축 전반으로의 재현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근대농촌이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기능과 경제 우선에의 대안, 보다 의미 있는 공간구조의 유지, 도시지역이 이미 상실한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 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 필요한 지역시설의 종류, 위계, 기능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주5). 농촌 근린지역에 생활권 위계에 따라 있어야 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었고, 종류와 위계 정도에 그치어 왔는데 앞으로는 건물의 기능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근린시설과는 상이한 농촌고유의 기능요소에 근거한 건물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기술분야에 속하는 구조/시공은 속성상 농촌계획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대체로 도시에서 이미 시도한 것의 적정선 하향화 기술로서 대안을 낸 것이 그 동안의 경향이다. 단지, 현지자재의 활용, 조립식공법 등이 단독주택에 더러 사용되었는데(주6), 성공여부는 불문하고 실험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기존주택의 부분개선에서의 구조/재료/시공/분야의 기여이다. 기술과 건축재료에 있어서 전래식과 현대식이 공존해야 하는 이 경계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의 해결은 기술부문에만 묻기에는 어려우며, 건축계획 부문과의 협동에 의해 정해야 하며, 기술의 사회성에 입각한 판단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 3. 농촌건축의 발전과 주요 주제

농촌계획은 그 전개를 국토환경을 함께 구성하는 도시계획과의 역할분담에서 찾아야 한다. 농촌은 도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농촌의 의의를 찾을 수 있듯이 농촌은 도시와 대비 상보하는 관계인 것이다. 도시가 더 이상 농촌발전의 모델이 될 수 없듯이 도시건축과 도시 아파트도 농촌건축과 농촌주택의 대안이 못되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상충되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도시보다 더 예측이 곤란한 면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가치관, 인구구조, 자연환경, 인공환경 등 모든 장르에 걸쳐 있으며 농촌계획에서 이들을 극복하고 적절히 반영시키는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건축도 농촌계획의 테두리 내에 있으며 도시건축에 대해 대조적 측면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삶을 담는 물리환경을 구현함에 있어 급변하는 농촌지역의 생활과 일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는 핵심사항이며 건축학은 어느 다른 학문분야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농촌건축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주택에 대체되는 주택형의 개발이다.

근래에 농촌지역을 파고드는 중고층아파트를 외면하면서 농촌계획을 온전히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종전과 같이 단독주택형만으로 개발계획을 만든다는 것도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개발과제마다 적절한 선에서 수용과 조정을 하면서 농촌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주택형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취향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 예로서 자연을 활용한 주택형, 농촌변화에 대응한 주택형 등은 중요한 착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

연요소에 조화를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성취한 예도 없었고, 자연요소의 적극적 활용을 시도한 사례도 드물었다. 자연은 농촌에 풍부히 있는 자원이지만 이것에의 조화 운운하며 건축을 제한할 구속장치만은 아닌데 이를 착각하고 마치 이를 되뇌이는 것이 사려 깊은 문화적 설계인 듯 제 꿈에 빠지는 분위기도 있어 왔다. 장래 변화만 해도 농촌이 도시보다 더 클 터인데 이것이 반영된 주택형이 보이지 않는다. 농촌은 정주형 주거가 필요함에서 도시의 체제형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흔히 현재에 적합한 것은 장래에는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더 큰 융통성과 가변성이 필요하고, 이것 위주로의 주택모델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이다.

둘째, 농촌에 산재한 기존 건축물의 활용, 부분개선, 이용률 증대 등을 위한 조직적 시도이다. 아직도 다수를 점하는 전래형주택의 부분개선, 용도 폐기된 농작업건물의 활용, 기능이 약화된 초중등학교 정미소 창고 등 지역시설의 전용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제거리로서 보다는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유용한 자원이라는 적극적 사고로 대처해야할 대상이다. 더 나아가 지역의 전통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에 긴요하다는 데서도 큰 이유를 찾아야 한다. 활용프로그램의 개발,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종합계획, 환경에 대한 주민의 문화의식 제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 자재, 구법 등에 있어서도 대체적(alternative) 건축자재와 구법의 개발과 시험적 적용 등이 있어야 겠으나 이 부분은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생산업계의 독자적 개발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사항에 머물고 있다.

셋째, 지역개발계획과 관련된 마을단위 개발계획의 기준과 프로토타입의 작성이다. 이는 여러 전문분야에서 참여하는 공동작업이 필수적인데 개발계획 중 특히 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타당성 검토, 설계안 등에서 건축학이 적절한 기여를 할 것이다. 지방자치체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각 지역마다 개발지향 확대현상이 나타나고 각종 개발안이 난무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고유의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설득 시행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반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간 시행된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일의 시작이 된다. 중앙기관에서 한 사업이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와 공개토의 없이 지난다는 것은 장차 지방자치체가 시행될 때 이러한 사업에 관해서 지방이 중앙을 불신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를 요한다.

농촌계획은 도시계획 지역계획 등과 동일하게 공공성 추구가 목표이며 정부가 수립과 시행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아마도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채인 농촌계획은 포괄 대상이 더 넓고 유동적이며 기업의 활동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데 있다. 그 동안 농촌의 미래를 위한 계획과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왔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반면에 관련자들의 능력과 조직은 너무나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공동의 전문적 노력이 필요한 바 농촌계획학회의 각 분야와 함께 건축학이 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짐한다.

주1 : Tradi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Rural Architecture, Jang Seong-Jun, PhD thesis, University of Leuven, 1983

“농촌주거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건축문화의 양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창립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1989. 7.

주2 : 농촌주택현상설계도집1992, 1994, 농어촌진흥공사, 1992, 1994

주3 : 농촌주거환경개선편람1993, 농진청+농촌생활연, 장성준+우리계획, 1993

주4 : 예로서, 의인/섬마을 건축환경 실측조사 1977, 남사마을 건축환경 실측조사 1983, 기타의 울산대 건축학과에서의 제작업

주5 : 예로서, “지역주민의 집회활동과 활동장소에 관한 연구”, 전경배+정건채+장택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8.

주6 : 예로서,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의 충남 월암리 농촌주택건설(1993)에서의 주택은 대부분 조립식 개발이며 전문가재 및 건설업체가 참여한 것이다.